

< 보드게임으로 만나는 독립운동의 역사 >

만든 사람 : 똑딱똑딱 보드연구회(서울시 시민참 공모사업)

‘100년을 보다’라는 주제로 해오름 교사회에서 진행한 서울시내 독립운동지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방 이후 철차적 민주주의가 마련되고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일제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을 위한 노력과 임시정부 수립의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음을 느끼고 후속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은 답사를 하지만 재미와 깊이를 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보드게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 시민참 사업에 참여하여 남산, 정동 그리고 명동 일대를 배경으로 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서울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응용하고 보완해가면서 즐겁게 역사를 만나는 기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게임 구성품

보드판, 말, 말과 같은 색의 타일, 코인, 문제카드 3종류 (색깔별로 구분), 액션카드

2) 점수 계산 방법과 승리하는 방법

- ① 2-4인용 게임입니다. 각자 말, 말과 같은 색의 타일, 그리고 코인을 지급받습니다.
- ② 게임에 참여한 사람 중 한 명의 코인이나 타일이 다 소진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 ③ 타일(타일 1점)과 남아있는 코인을 더한 점수가 더 높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 ④ 3개의 코스 중 하나의 길에 나의 타일이 모두 놓여 길을 완성하면 보너스 점수가 주어집니다.
(1코스 : 파랑, 인권의 길 5점 / 2코스 : 빨강, 국치의 길 10점 / 3코스 : 초록, 항일투쟁의 길 15점)

3) 게임하는 방법

- ① 각자 원하는 꼭지점에서 출발하며 주사위를 던져 상하좌우로 이동합니다. 대각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보드 위 모든 칸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② 이동한 후 그 칸에 인접한 칸에 타일을 3개 놓습니다.

| | | |
|---|---|---|
| × | | × |
| | 말 | |
| × | | × |

(예: , × 칸은 말과 인접하지 않았으므로 타일을 놓을 수 없다.)

- ③ 게임주자의 타일이 놓여 있으면 그 위를 지나가는 다른 게임주자들에게 지나간 타일의 개수만큼 통행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④ 이동한 칸이 색이 있는 길이면 그 색에 해당하는 문제를 푼다. 문제는 오른쪽 옆에 있는 게임주자가 읽어 줍니다.
(문제를 맞으면 다른 사람의 타일을 하나 제거합니다. 문제를 틀리면 나의 타일을 하나 제거합니다. ==> 제거한 타일은 게임판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즉 최종 점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⑤ A라고 적혀있는 칸에 도착할 경우는 액션카드를 하나 뒤집어 미션을 수행합니다.
- ⑥ 나의 타일 혹은 다른 사람의 타일이 놓여있는 칸 위로 지나갈 수 있으며 그 위에 다시 타일을 중복해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소유권은 제일 위에 놓인 타일색의 주인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